

무엇이 진짜 말후구인가?

조계종 중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덕산 스님이 어느 날 공양이 늦어지자 손수 발우를 들고서 법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공양주 소임을 살고 있던 설봉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종도 차지 않고 복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산승의 견처로 점검해보니 최초의 일구를 안다면 최후의 일구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일구나 최초의 일구 모두 궁극적인 일구 즉 말 후구는 아닙니다. 이들 공안을 제방에서 흔히들 여러 가지로 논해왔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덕산 스님은 머리를 꼭 숙이고서 곧장 방장실로 되돌아갔습니다. 설봉스님과 함께 살던 암두 스님은 이 일을 전해 듣고서 또 한마디를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덕산이 말후구(末後句)도 모르는구나.”

그러자 덕산 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암두 스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노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암두 스님은 은밀히 자신의 뜻을 덕산 스님에게 열어 보였습니다.

이튿날 덕산 스님은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는데 그 전의 법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자 암두가 큰방 앞에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노장이 이제 겨우 말 후구를 알게 되었구나. 이 이후로는 천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다만 삼년 뿐이로다.” (중략)

결제대중들이여!

다 못 네 눈앞에 있느니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눈 앞에는 차별된 어떤 법도 없으니, 형상과 마음이 있고 없음을 차별심을 가지고 보면, 어디에 있어도 눈앞의 법을 보지 못하느니라.



안리고산봉연련(眼裏高山峰連連) 눈앞에 높은 산봉우리 첩첩하고 유수부세아장한(流水不洗我長恨) 흐르는 물은 나의 긴 한을 씻지 못하네 홀연춘래고목(忽然春來放槁木) 홀연히 옛 마른나무에 봄이 오니 회탄홍지성차신(花綻紅枝省此身) 분홍 가지에 꽃망울 터질 때 이 몸을 발견했네

한 남자가 만공노사를 찾아뵈고 여쭙기를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노사께서는 이르시기를 “다 못 네 눈앞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남자는 다시 “눈앞에 있다면 저에게는 어찌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여쭙니, 노사께서는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느니라” 하시니, 남자는 여쭙기를 “스님께서 보셨습니까?” 하니, 노사께서는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남자가 다시 여쭙기를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 노사께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이 때를 당하여 무어라 말하겠는가? (후략)

수염 붉은 호인을 보았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오직 일대사를 위해 시방에서 오신 수행납자들이여, 각자 큰 뜻을 가슴에 품고 모였으니 이제부터 한바탕 호쾌하게 지어가 봅시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 누구 있어 나를 대신하겠습니까?

‘호인은 수염이 붉다고 하더라. 오늘 수염 붉은 호인을 내가 보았다.’

이 한마디를 잘 살펴 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공부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저 정진, 정진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 없습니다.

제가 모신 효봉 스님은 참 움직이게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도 나는 미련하게 그저 밀고 나가는 법밖에 모르니 너희들은 좀 슬기롭게 공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중 겪어보고 나니 그분의 공부법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중략)

여러분 같은 기성과 지혜를 갖추었으면 한 판 멋지게 해치울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오직 간절하고 철저히 파고 들어 한판 멋지게 해치웁시다.

산승은 미력을 다해 시봉을 할 테니 출격 대장부들이여, 이번 혈에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기 바랍니다.

병과 약 다할 때 참사람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약육수행(若欲修行) 만약 수행을 하고자 할진댄 선수돈오(先須頓悟) 모름지기 돈오가 우선이니 수본진심(守本真心) 본래 참 마음을 지켜야 한다



미심수도(迷心修道) 미혹되게 마음을 닦는 것은 단조무명(但造無明) 단지 무명을 따를 뿐이다 병진약제(病盡藥除) 병과 약이 다할 때에 이르러 환시본인(還是本人) 이를 참사람이라 한다.

백장선사(百丈禪師) 밑에 신찬선사(神贊禪師) 라는 제자가 있었다. 제현(戒賢) 강백의 상좌이다. 신찬선사가 스승인 제현 스님이 참선은 하지 않고 문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백장선사를 찾아서 공부하고 돌아와 그의 스승인 제현 스님의 등을 밀면서 대화한 내용이다. (중략) 신찬 스님은 서슴지 않고 상당하여 설법하였다. 영광득로(靈光獨耀) 신명한 광명이 홀로 드러나서 향탈근진(向脫根塵) 육근육진의 모든 분별을 벗어났네. 체로진상(體露真常) 그 자체가 항상 참됨을 드러내어 불구문자(不拘文字) 언어문자에 걸리지 않는다. 진성무염(眞性無染) 진성은 더럽혀지지 않고 본자원성(本自圓成) 본래부터 원만히 성취되어 있네. 단리망연(但離妄緣) 다만 허망한 인연만 떨쳐 버려라. 즉여여불(卽如如佛) 곧 그대가 부처이니라.

그리고서 주장자를 굴리자, 제현 스님은 크게 발삼하여 다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내 이렇게 늙어서 상좌에게 극치법문을 들을 줄 기대나 했겠는가? 모두 부처님의 은혜이로구나.”

골짜기 물소리 따라 가라

태고종 중정 ·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춘색만연장만물(春色漫然蒼萬物) 봄빛 가득하여 만물이 창성하니 준동함령생환희(蠢動咸靈生歡喜) 생명가진 모든 것을 다 함께 기뻐하네



연연세세화상사(年年歲歲花相似) 해마다 피는 꽃은 변함없는 그 꽃인데 세세연연인부동(歲歲年年人不同) 어찌하여 사람만은 세월따라 변하는가 (중략)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승속(僧俗)과 선교(禪敎)를 구분하고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를 나누어 진공(眞空)이니 가유(假有)니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이론에 치우치고 이것을 밝은 지식으로 착각하여 마음의 보배를 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진리는 말을 떠나고(眞理離言) 한쪽이 치우쳐선 통하지 않습니다(一邊不通). 고정관념을 떠나(離懸辨) 머무는 곳이 없이(無所住) 얻는바가 없는(無所有) 지혜를 얻는

것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안거에 들어가는 수행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쪽으로 나누어 헤아리는 마음의 저울대를 쥐는 일입니다. 이 저울대를 그대로 붙잡고 수행해본들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별심의 저울대를 딱 꺾어버리고 골짜기에 흐르는 물처럼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에서 실상의 법칙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봄날의 황사먼지가 천지를 뒤덮다가도 비가 와서 먼지가 씻겨 내려가듯 대자연의 정명(淸明)한 본래의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듯 명각(明覺)의 거울에 부처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옛 조사의 금구(金句)를 일러 공부하는 이의 조도(助道)로 삼고자 합니다.

제도분무수 불수자합도(體道本無修 不修自合道) 도는 본래 뒤를 것 없어 닦지 않으면 절로 도에 이르나니 약기수도심 차인불합도(若起修道心 此人不合道) 도 닦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는 도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일진성 각일료호호(棄却一眞性 却入闊浩浩) 도리어 참 성품을 버리고 시끄러움에 들게 되나니 홀불수도인 제일막향도(忽逢修道人 第一莫向道) 혹 도 닦는 이 만나거든 제일 먼저 도를 향하지 말라하라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백담사 무금선원 결제 현장

문 잠그고 들어가 '문 없는 문' 연다

“부처님은 설산수도 6년 만에 깨쳤고 원효 스님은 하루 밤 만에 깨쳤으니 이번 한철 공부 잘해서 설악산의 주인이 되라.”

5월 12일 하안거 결제날, 설악산 백담사 무금선원(선원장 신룡)의 결제법회는 간결했다. 신룡사 회주 오현 스님의 결제 법문이 30명의 기본선원 확인들과 무문관 수행 수좌 11명에게 새 힘을 돋워 주었다.

기본선원과 무문관, 아이러니다. 간화선의 기본을 배우는 사미들과 선방 구참들이 ‘도전’ 하는 석담간의 무문관에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선적(禪的)이라고 할까? 이날 무금선원 무문관에 든 수좌 가운데 전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 전 대흥사 주지



백담사 무금선원의 하안거 결제법회에서 신룡사 회주 오현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보선 스님, 통도사 월파 스님 등 구참 수좌들이 눈에 띄었다. 20안거를 넘겨야 하는 원칙을 감안해도 분사주지 소임을 살린 스님들의 무문관 입방은 보기 드문 일이다.

무문관 수행은 3개월간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끊고 묵은 수행을 하고,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공양하며 고행 정진을 하게 된다. 조계종 기본선원에서는 사미 스님들이 교

선사인 호림(실천승회화 공동의장), 자명 스님에게 지도를 받는다. 일주일엔 두 번 진제를 송담 스님의 녹을 법문을 듣고 탁막하게 된다. 기본선원의 하루 일과는 새벽 2시 40분에 일어나 예불을 하고 하루 4번 10시간 정도 정진한다. 오후 묵은 수행을 하고 매일 1-2시간 정도 율력도 빼 놓지 않는다.

글 · 사진/백담사·고명배 기자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기도

prayer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치유의 메시지

몸이 아픈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삶이 힘들어 고동판과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에게 염원하게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이 책은 종교와 종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모든 현대인에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되짚어 준다.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탁넛한 지음 | 김문경 옮김 | 9,000원

화 100만 독자가 선택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세월이 흐를수록, 화가 날 때마다 다시 꺼내 읽게 되는 탁넛한 지음 | 최수민 옮김 | 8,800원

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발견
2003년 한국 평등 기념으로 세계 최초 출간된 화제의 책
탁넛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8,900원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법화경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한다
탁넛한 지음 | 박유경 옮김 | 10,000원